

돌침대, 방사능 유출 주의하라!

과기부, A사 허용치보다 9% 초과 ... 모나자이트 가루 사용 때문

<건강 침대>로 불리며 인기리에 시판되고 있는 일부 돌침대에서 방사능이 대량 유출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돌침대를 시판하고 있는 A사의 제품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이 일반인에 대한 연간 허용기준치보다 9% 이상 높게 측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부는 최근 A사의 돌침대 방사능 유출 의혹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조사를 의뢰해 방사능 유출량을 측정한 결과, 매일 6시간 이상 사용하면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일반인 허용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보다 9%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A사의 제품 2-3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추가로 방사능 유출량을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조사결과 방사능 피폭선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허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A사의 돌침대에서 방사능이 대량 유출되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나 일단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의 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나자이트는 방사성 원소인 <토륨>이 다량 함유돼 있어 방사능을 유출하며 타이, 말레이시아, 인디아,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토륨에서 발생하는 라듐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하면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중국이나 브라질에서 수입해 돌침대, 음이온 팔찌 등 생활용품에 활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08>